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의 삶

요한계시록 14:1~13

【인도자를 위한 예화】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류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해외여행과 같은 기회를 학습했습니다. 과거 제주도는 수재(水災), 한재(旱災), 풍재(風災)라는 삼재(앙)의 섬으로 그다지 유쾌한 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의 유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유네스코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고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으로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면서 제주도에 유익이 되는 면도 있지만, 무례한 관광객 문제로 인해 골치 아픈 일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서 11:13~16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외국인'(Strangers)과 '나그네'(Pilgrims)와 같은 존재, 즉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며,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종말의 대환난을 보여 주는 기사로, 7년 대환난의 관점에서 종말을 재조명하는 12~14장 내용의 종결부입니다. 1절에서 14만 4천의 송영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6:17)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은 이와 동일한 패턴으로 12~13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붉은 용과 교회에 대한 두 짐승의 핍박을 묘사한 후, 본문에서 그토록 철저한 사탄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분명히 보여 줍니다. 본문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요한의 관심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 내가 보니'는 요한이 보고 있던 환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요한이 환상을 통해 분명히 경험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어린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5:6)으로 볼 때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승리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서신 것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4,000은 어떤 사람들인가요?(4~5절)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양을 따르고,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구속받은 성도의 수를 상징합니다. 7:9에서는 14만 4천을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7:4에서는 '인 침을 받은 자'로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인'(印)이란 고대 군주가 자신의 공식 문서나 재산 또는 자기 가족의 소유를 표시할 때 찍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 침'은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를 소유 삼고, 동시에 확실히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여성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 즉 죄악 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 순결을 지켰습니다. 어린양 되신 예

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거짓말’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삶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윤리적으로 깨끗함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처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14만 4천은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적용과 나눔 I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내가 기억하는 말씀 혹은 내가 세운 원칙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어린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4절)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영적 거룩함과 더불어 육적 거룩함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죄 사함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갈 5:16)라고 권면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관찰과 묵상 II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9~11절)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며 밤낮 쉬를 얻지 못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시온산 환상과 달리(1~5절), 천사가 차례로 등장해 땅에서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6~11절).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6절).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에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7절).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라며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8절).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9~11절). 짐승의 배후에는 용(사탄)이 있습니다.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 용의 명령을 받아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용과 짐승들이 연합해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짐승이 잠깐 동안 권세를 부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한정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뜻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과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 또한 불과 유황 심판 곧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됩니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명과 믿음을 인내로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12~13절).

적용과 나눔 II

일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마귀)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고후 4:4). 사탄은 최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끝까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무기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12절). 인내는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합니다. 인내를 견뎌낸 믿음은 영적 전쟁을 치른 후에도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위해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합니다.